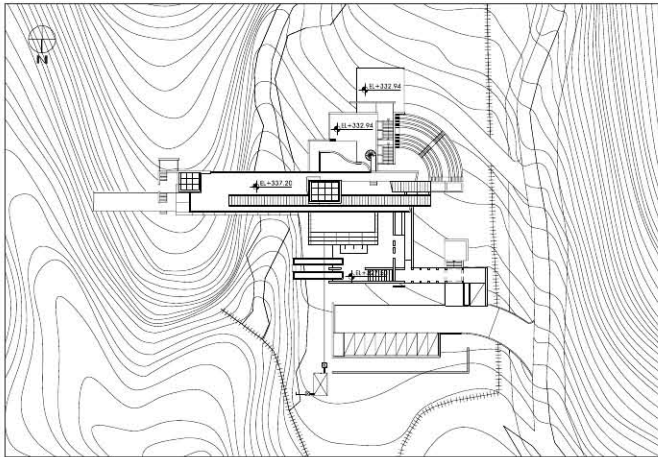


#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Korea Innovation Decentralization Acade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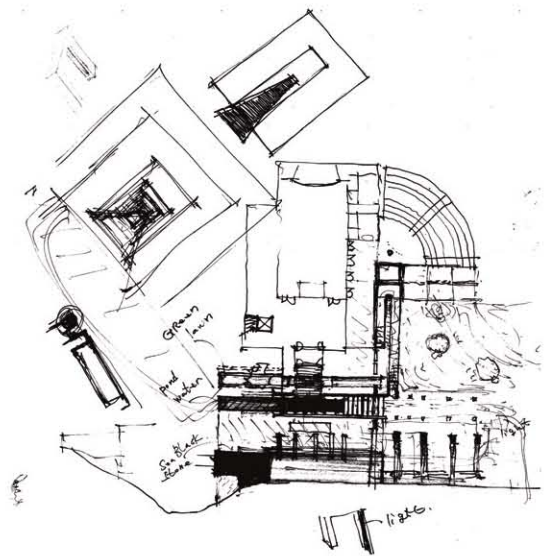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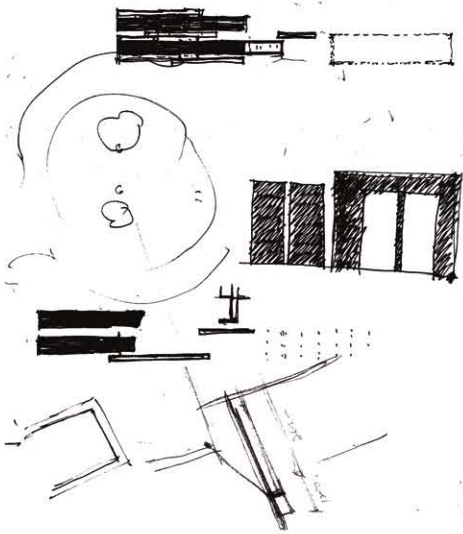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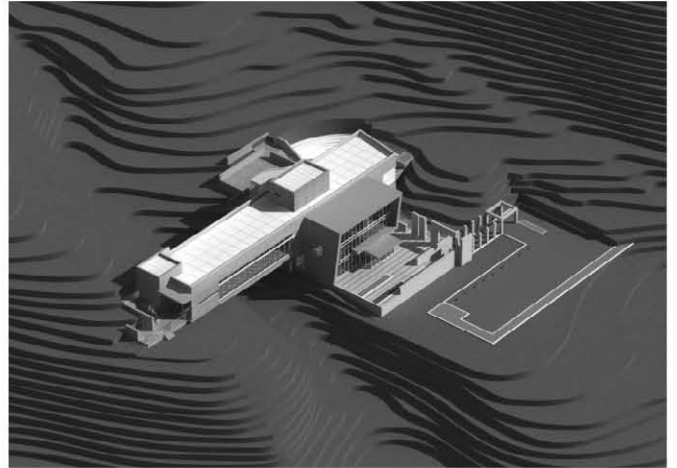
● 배치도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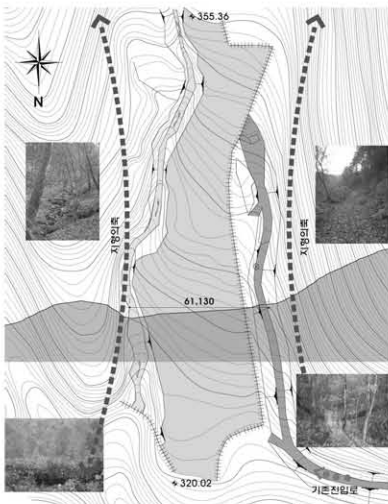
대지위치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 46-1
지역지구	보존녹지지역, 농림지역, 산림지역, 보전임지
대지면적	15,172.792m <sup>2</sup>
건축면적	925.88m <sup>2</sup>
연면적	896.92m <sup>2</sup>
건폐율	0.02%
용적률	0.06%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압출성형콘크리트패널, 적삼목, 투명복층유리
설계담당	이형준, 정재만, 정진섭, 고광주





개념스케치

호반의 도시 춘천의 북서면, 그림 같은 북한강 줄기를 따라 굽이 흐르는 물은 수렵장이 있는 오월리 계곡으로도 연결된다. 겹겹이 둘러 있는 능선과 그 능선들이 만들어낸 계곡의 숲으로 인해 문득 자연의 깊은 중심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깊이감이 느껴지는 장소에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의 새 터전이 건립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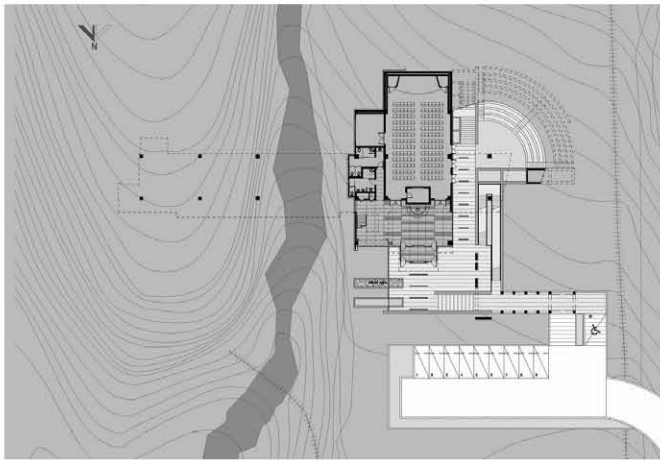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체계적인 논리 개발과 연구를 위한 지원, 지방분권 관련 교육과 각종 학술세미나 및 정책토론 개최 등을 통한 분권운동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건축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에 있어서의 주 용도로 중, 대형 세미나실, 회의실, 로비, 인테넷카페, 자

료실과 사무실 등을 갖추고 면적은 약 840㎡ 규모를 필요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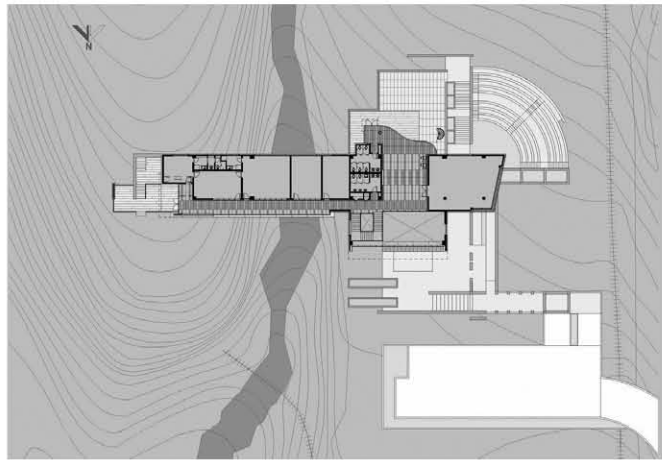
초기 현장 조사에 함께한 발주자 측에서는 두개의 능선 사이 어느 정도 평평한 대지 중심의 아랫부분이나 윗부분에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우선적으로 건축과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적절한 균형 선상에서 유기적으로 맺어지길 기대했다. 디자인을 통해 얻어지는 조화와 균형(대칭만이 아닌)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듯이 일반적이지 않은 초월된 장소성을 극복하거나 순응함으로써 건축적 정체성과 질서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에 따른 전제를 세웠다.

첫째 자연의 훼손은 최소한으로 국한 한다는 것이고, 둘째 초월할 수 없는 자연 환경적 스케일감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이고, 셋째 건축에 있어 환경적 요소를 적극 활용, 친환경 건축을 조성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대지를 중심으로 양면으로 강하게 축을 형성 하고 있는 두개의 능선의 크기와 규모나 방향성을 보아야 했고 그 두개의 능선이 끝나는 지점인 진입도로 바로아래 직각으로 또 다른 능선과 계곡이 부딪쳐 흐르는데 그 물줄기는 다소 깊고 넓은 폭이었기에 대지내의 작은 개울과는 규모가 다르다. 이에 따라 흐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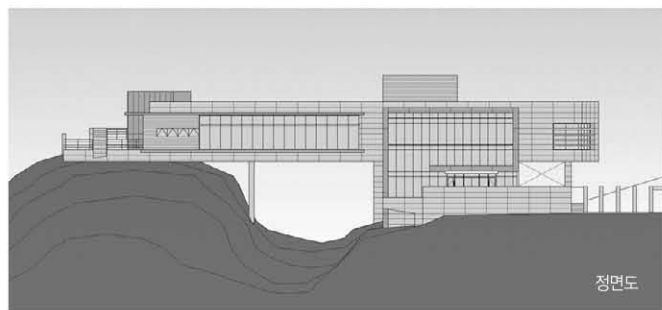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는 계곡의 선형이나 수리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에 가슴으로 귀를 기울여야함으로서 인간의 행위가 최소한 자연 앞에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리석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하겠다.

어프로치 형식은 다소 은유적이고 유추된 공감감과 전혀 다른 새로움을 연속적으로 접하도록 의도 되어져 넓고 다양한 시각적 뷰를 확보함은 물론 공간적 체험 또한 다채롭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내부까지의 진입축이 일직선상에 놓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플로어에 진입할 때 마다 축이 변화한다. 그래서 자연에서 시작한 축은 결국 자연으로 환원되는 연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진입마당에 평면적으로 수평적 건축의 기본 축과 나란히 뻗어있는 두개의 콘크리트 박스 중 하나는 물을 담고 하나는 잔디 보다 조금 키가 큰 백합과 식물인 맥문동을 심는다. 하나는 정화의 의미이고 하나는 변화와 발전의 의미이며 분권아카데미의 교육적 가치 실현과 비전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주차장에서부터 건물의 1층 주출입구까지 이어지는 의식화된 의미로서의 열주와 벽식 조형물로부터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마스터 플랜 계획에 있어 자연스럽게 구배된 대지의 형상에 그대로 순응하여 대지 아랫부분은 주차장을, 중심부의 경사면에 1층의 베이스를 형성하고 층고가 높고 창이 필요하지 않은 대형세미나실을 배치하여 경사진 대지에 묻혀 그 지붕층이 2층의 후면 테크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단면 개념을 입체적으로 본다면 대지 레벨차를 이용한 테크의 연속적 연출인 것이다. 대의 위쪽으로는 증축을 고려

한 여분의 대지를 남겨놓기로 하였다. 동측 능선의 높이가 높지 않고 완만한 각을 이루고 있었기에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건축의 수직수평 축을 설정할 수 있었다.

2층은 동측 능선의 축과 나란한 1층과 90도로 축을 틀어 능선으로 가로 질러 '루'의 형태를 취하며 길게 뻗어나갈 수 있다면 능선의 숲과 손잡고 그 너머의 또 다른 계곡의 아름다움을 보너스로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과 되도록 많은 면의 건축과 자연이 접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현한 것이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주 사용자인 분권아카데미 안원장님의 환호로운 동의와 격려에 힘입어 탄력적으로 진행된 좋은 예이다.

남쪽으로는 업무동의 실들이 유기적으로 배치되고 휴게라운지공간들 사이에 두고 중형 세미나실이 배치된다. 북측 면이 진입축의 전면이 되어 북도공간이 중간 매개 역할을 함은 물론 단열이나 환기등을 쾌적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게 돕는다. 휴게라운지에서는 남측 테크로의 출입이 가능하며 외부로의 자유로운 동선이 확보된다. 동측 능선으로 뻗어있는 북도를 따라 걷다보면 다시 오픈된 테크와 확장된 자연이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다. 아래로는 작은 물이 흐르고 위로는 태양과 달과 별이 사계절과 함께 사람들에게 쏟아주는 아름다운 축복이 기대된다.

자연과 환경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거나 순응하면서 얻어지는 건축적 결과는 형태와 기능을 충족하고 새로운 장소성과 공간감을 재분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분권아카데미는 교육장이자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 많은 이들의 밝은 미래에 기여 할 것이라 생각된다. ■